

이기휘 인턴십 보고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찾아



목 차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에	1
고민점	2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2
공터소개	3
 활동내용	 7
자기소개: 자기소개영상제작	8
꿈마을 공동체 인터뷰 감사선물제작 꿈마을청소년팀 책마을도서관팀 마을활동가.....	9
마을과 마디(지구불시착) 새로움과 기다림을 배웠던 지구불시착.....	14
되살림 가게 든든한 보따리 공릉동을 느낄 수 있었던 든이.....	16
반디상회 반디상회 마무리 영상편집 반디를 마무리하며	18
개인프로젝트	21
팔딱팔딱	23
가치놀자.....	24
청소년협동조합.....	25
하계중학교 진로 동아리	28
꿈마을 책 토론	29
와글와글 이벤트	30
 전체평가.....	 33
공터에서 이기휘 인턴은	34
 마치며	 37
윤희쌤	38
설대리님	39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공터소개

고민점

하고 싶은 일을 6학년이 되어서도 찾지 못했다. 나에게 간디학교에서의 6년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6학년의 핵심 교육과정을 앞둔 상태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고민했다. 진작 좀 고민할걸…….

2021년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도 고민을 멈출 수 없었다. 개인무빙¹⁾을 준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단체를 찾지 못해서 나 홀로 단체를 정하지 못한 최후의 1인이 되었었는데 인턴십도 최후의 1인으로 남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5학년 2학기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나마 나와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에 덜 걱정되었던 것 같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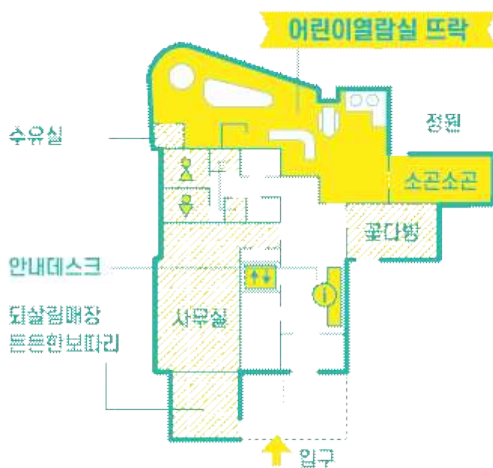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바꿀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홍동에 가게 되었다. 홍동에서 마을활력소를 찾게 되었는데 마을활력소에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공동체에 매력을 느꼈다. 홍동을 둘러보며 참 평화롭다는 생각을 했다. 쉬이 있고, 행복해보였다. 홍동을 보며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은 마을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은가. 바로 마하트마 간디이다. 간디의 스와데시 정신을 따라 마을공동체에 대해 배워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들을 찾아보던 나는 궁금해졌다. 간디는 자급자족의 농촌 공동체들을 말했는데 내가 졸업한 삼각산 재미난학교처럼, 성미산 학교처럼 보란 듯이 잘 운영되고 있는 도시마을 공동체들이 존재했다. 이런 도시마을공동체들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적은 수에 한계를 느끼고 병곤쌤께 추천받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가게 되었다.

1) 개인무빙은 간디학교 5학년이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인턴십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단체를 찾아 1달간 실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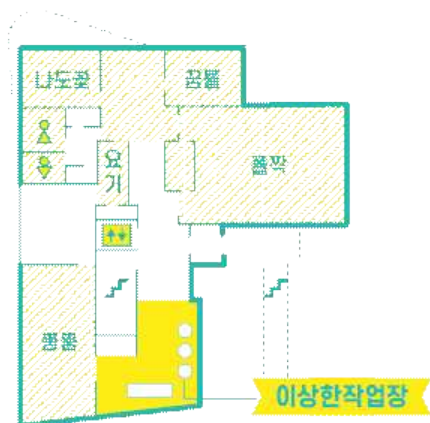
공터소개

공터는 노원구 공릉2동에 위치해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자 도서관시설이다. 자주적이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청소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청소년자치와 사회참여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독서교육활동, 문화예술 과학체험활동, 꿈찾기·길찾기 진로교육 등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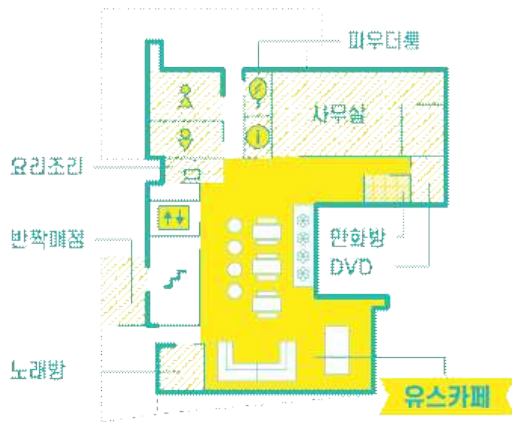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모두 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 ‘뜨락’, 안내데스크, 퇴살림매장 ‘튼튼한 보따리’, 카페 ‘꽃다방’이 있다. 꽃다방은 청소년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이며 청소년 할인이 된다. 자주 가지 못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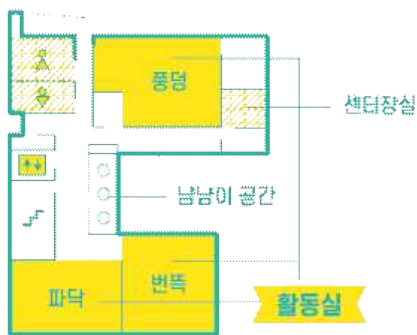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2층에는 거울이 있는 공간 ‘뽀뽀’와 넓은 다목적실 ‘폴짝’,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상한 작업장’이 있다. 이상한 작업장은 맥북, 3d펜, 글루건 같은 물품들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창작 공간이다.



〈3층 평면도〉

3층에는 내가 근무했던 꿈마을청소년팀 사무실이 있다. 나는 정해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의 회의실을 썼다. 뭔가 개인 사무실이 생긴 기분이었다. 3층에는 ‘유스카페’가 있다. 아마 공터²⁾에 오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이 공간을 사용하고자 공터를 방문할 듯하다. 플스와 닌텐도 스위치, 만화책, 포켓볼, 노래방, DVD방, DDR이 있다. 나는 주로 쉬는 시간을 플스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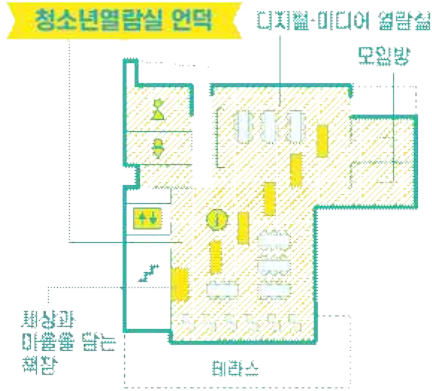
4층에는 센터장님의 개인 사무실과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학년 모임을 4층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5층에는 화랑도서관이 있다. 인턴십 초기에는 점심시간에 책을 읽으러 여러 번 들렀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3층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느라 가는 일이 적어졌다. 책도 많고 쉬기 좋은 공간이다.



〈5층 평면도〉

2)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앞글자와 뒷글자를 합친 줄임말



〈6층 평면도〉

6층은 열람실이다. 6층에는 재밌는 공간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덕질을 그만두며 기부해준 물품들을 가지고 ‘대놓고 보는 콘서트’라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 덕분에 다른 도서관과는 다른 느낌의 열람실이 되었다.

이처럼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우물터와 같은 공간이 되었다. 공터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며 공릉동 마을에서 빠질 수 없는 자랑거리가 되었다. 공터에서 나는 인턴십을 진행하기로 했다.

활동내용

자기소개

꿈마을 공동체 인터뷰

마을과 마디(지구불시착)

되살림 가게 든든한 보따리

반디상회

개인프로젝트

팔딱팔딱

가치놀자

청소년협동조합

하계중학교 진로 동아리

꿈마을 책 토론

와글와글 이벤트

자기소개

공터에서 첫 활동으로 자기소개를 준비했다. 처음으로 받은 활동이고 나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었기에 최대한 잘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진심을 담은 PPT를 만들었다. 최대한 단어는 줄이고 나의 발표능력에 맡기는 그런 PPT였다.

내가 살아온 삶, 그 삶을 통해 구축된 나의 가치관, 인턴십에 대한 설명, 공터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공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설명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한 선생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마을은 무엇인지 질문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깊은 고민 끝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마을이 아닐까요?’ 라고 답하게 되었다.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

자기소개 영상

공터와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하기로 했다. 영상편집은 살면서 처음 해보는 거라 윤혁쌤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모르는 건 유튜브를 보며 만들고 학교 후배 한준이에게도 도움 받았다. 센터에 있는 책으로 공부도 했다.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컷 편집을 했고 자막 박스 만들기, 망고보드를 이용해 인트로를 제작했다. 기술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영상이다 보니 담백하게 나온 것 같다.

공릉동 마을공동체 인터뷰

나는 꿈마을청소년팀, 책마을도서관팀,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을 인터뷰 했다. 각자 담당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었다.

감사 선물 제작하기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들께 직접 만든 선물을 드리기로 했다.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 직접 만든 스콘을 드리면 좋겠다는 윤혁쌤의 말씀에 스콘을 만들기로 했다. 오랜만에 만들어 보는 스콘이라 모양이 잘 나올까 걱정됐다. 3층 테라스에 있는 반짝매점 공간에서 스콘을 만들었다. 생각보다 모양이 잘 나와서 선물로 드리기 좋은 크기였다.



〈반짝매점에서 작업 중〉



〈완성된 스콘〉

꿈마을청소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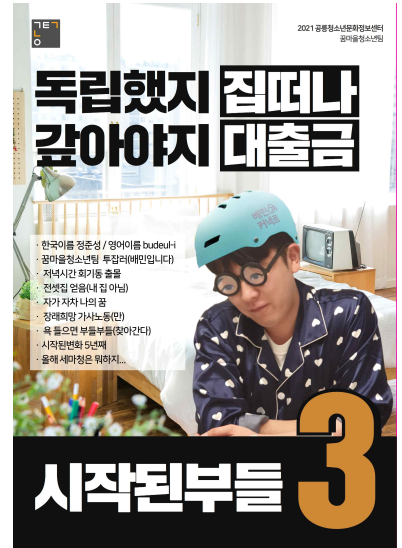
〈별 볼 일 있는 유스카페 담당 고수인 선생님〉

고수인 선생님은 3층 유스카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3층 유스카페에는 반짝매점이 있는데 반짝매점/유스카페를 운영하는 청소년 조직 라온제나와 그동안 유스카페에서 진행했던 이벤트들을 설명해주셨다. 라온제나 조직이 재밌었다. 청소년시설을 관리해주는 청소년조직이 있다는 게 좋았다.



〈시작된 변화 담당 정준성 선생님〉

정준성 선생님은 시작된변화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시작된 변화가 놀라웠던 점은 우리학교에서 진행했던 주제프로젝트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였다. 청소년이 주도해 키워드와 이슈들로 주제를 잡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라고 설명해주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주제프로젝트랑 똑같아서 이해하기도 쉬웠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아서 좋았다.



〈꿈마을청소년팀 보스 변수진 팀장님〉

변수진 팀장님은 꿈마을청소년팀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또한 다른 마을단체와 협력하는 방법이나 마을 축제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공릉동에는 큰 마을 행사인 와글와글축제와 꿈나르샤축제가 있다.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큰 축제는 하지 못했지만 이벤트로 소소하게 진행했다. 쌍문동에도 마을 축제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꽃 담당 하은주 선생님〉

하은주 선생님은 나도꽃을 설명해 주셨다. 나도꽃은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공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공터에서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나도꽃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나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학교밖청소년이 원하는 주제를 잡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시작된 변화와 다른 점은 이 프로젝트는 정말 개인적인 프로그램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원금도 지급한다. 공터는 구립시설이



라 이런 프로젝트의 지원금은 자유롭기 어려운데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마을기금을 사용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들이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을기금 이야기를 들으며 공릉동과 공터가 정말 많이 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학교 밖청소년의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정말 감사했다.

〈청소년 동아리 담당 홍일기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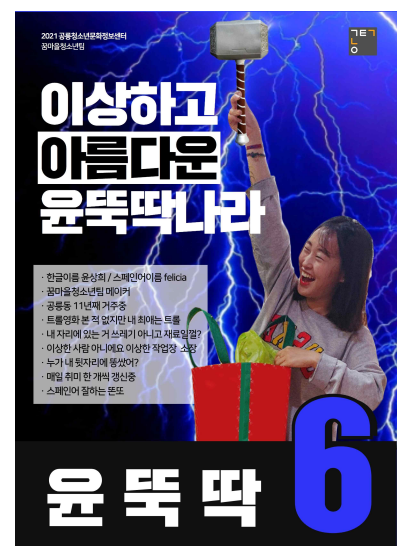
홍일기 선생님은 공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에 대해서 말해줬다.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자립성이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책임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책임감이 있을수록 목적성이 확실해 진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삶겹살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쭙봤다. 삶겹살프로젝트는 영상동아리이다. 삼겹살을 먹으며 팀이 만들어져서 삶겹살프로젝트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했다. 센터에 지원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나 단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상한 작업장 담당 윤상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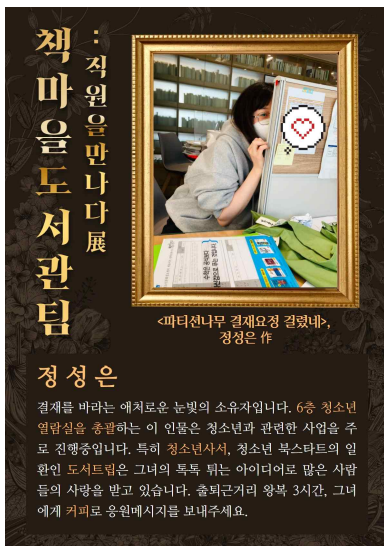
윤상희 선생님은 2층 이상한 작업장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이상한 작업장의 간단한 규칙과 어떤 이유로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셨다. 인터뷰를 작업장에서 진행했는데 3D펜을 사용하면서 인터뷰라기보다 뭔가 대화 하는 느낌으로 진행됐다. 3D펜이 재밌었다. 학교밖청소년들의 인턴십도 담당하셔서 인턴십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다.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경력을 제공하며 일에 대한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 인턴십을 진행한다고 했다. 나도꽃과 마찬가지로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책마을도서관팀

〈어린이 서가 담당 이해영 선생님〉

이해영 선생님은 어린이사서와 도서관을 설명해 주셨다. 화랑도서관은 1층 5층 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1층에 있는 어린이 서가를 담당한다고 했다. 화랑도서관에서는 어린이사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도서 트립 담당 정성은 선생님〉

정성은 선생님은 담당 프로그램과 공터에서 고졸의 삶이 어떤지 이야기 해주셨다. 특히 대학과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무학력이 지금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가슴 아팠다. 현실과 이상을 타협해야할 때가 왔다는 게 슬퍼졌다. 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학교 도서관에서도 진행하면 재미있을 듯한 프로그램이었다.

마을활동가

꿈마을여행단 함순교 대표님은 마을여행에 대해서 설명했다. 간단하게 공릉동을 걸으면서 진행됐다. 마을여행에는 3가지 코스가 있다. 공동체코스, 경춘선코스, 문화코스가 있다. 공동체코스는 공동체관련 단체들이 공릉동을 방문하면 공동체코스로 마을을 설명해주신다고 하셨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능참봉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셨다. 능참봉은 공릉동에 있는 태릉/강릉 쪽을 학생들과 탐방하는 프로젝트라고 하셨다.

공터에서 출발해 공릉동 불빛정원으로 가 반디상회에서 인터뷰를 끝마쳤다. 공릉동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꿈마을협동조합 이선옥 이사장님은 꿈마을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했다. 2021년도 꿈마을협동조합의 목표는 환경보호에 있다고 하셨다. 마을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 꿈마을협동조합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공터가 얼마나 공릉동에 소중한 존재인지도 말씀해주셨다. 이사장님을 인터뷰하면서 공터가 공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공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청소년 휴카페 꽃다방 박재라 대표님은 공터 1층에 있는 꽃다방에 대해서 말씀했다. 꽃다방에서는 커피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기에 청소년할인이 적용되고, 꽃다방에서의 수익금은 후원에 사용하신다고 하셨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했다.

마을과 마디(지구불시착)

〈마을과 마디는〉

마을과 마디(지구불시착)는 태릉입구역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카페 및 독립서점이다. 지구불시착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왜 손님이 없을까’이다. 내가 지구불시착에서 실습할 때도 그랬지만 사람이 정말 없다. 분위기도 좋고 택수쌤도 유쾌하신데 손님이 없다. 공릉동에 놀러 가면 한번 둘러보자.

지구불시착에서는 음료를 만드는 일을 주로 했다. 커피머신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스무디, 에이드 만드는 법과 판매하는 메뉴 레시피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했다. 처음으로 해보는 카페 일이라 많이 서툴렀던 것 같다. 오히려 손님이 없었던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마디에서 처음으로 포스기를 쓰는 법을 배웠다. 카페일이 처음이다 보니 엄청 벅했던 게 기억이 난다. 현금결제가 없었던걸 감사해야할지도 모르겠다. 단체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받기가 정말 힘들었다. 한번은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혼자 포스기로 계산하며 메뉴 10개를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난다. 혼자 30분 동안 고생을 했다.

〈지구불시착의 숨은 고수〉

커피내리는 일도 재밌었지만 택수쌤과 노는 게 더 재미있었다. 손님이 없을땐 주로 게임을 했다. 택수쌤은 책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그림그리는 걸 좋아하셔서 맥을 쓰셨는데 그 맥에 있는 체스를 했다. 체스가 처음이라고 하셔서 못하실 줄 알았는데 엄청 잘하셨다. 아마 장기를 두셨어서 그랬을 듯하다. 체스를 2번 두었는데 두 번다 졌다. 평생 나를 이긴 사람으로 남고 싶으시다고 내가 재도전을 신청해도 항상 도망가셨다. 체스는 졌으니 다른 건 이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핸드폰으로 오목을 깔아서 도전했다. 근데 졌다. 첫판은 처참히 깨졌다. 삼세판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다음 판을 했다. 다음 판은 초집중 모드로 상대했다. 지고 있던 찰나 택수쌤께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나는 마치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실수를 물어뜯었다. 결국 두 번째 판은 이기휘가 승리했다. 택수쌤께서는 그런 날 보고 야비한 녀석이라며 놀리셨다. 나도 질까봐 다음 판은 사양했다 ^^

〈지구불시착에서〉

지구불시착이 서점이다 보니 책정리도 하게 되었다. 엑셀을 사용해 지구불시착에 있는 책들을 택수 쌤과 함께 정리했다. 가나다순으로 가격까지 정리했다. 하지만 책이 너무 많고 먼지도 엄청나게 많아서 먼지를 털고 책장을 닦고 책 제목과 가격을 적고 책을 정리하려니 엄청나게 힘들었다. 택수 쌤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며 중간 중간 계속 쉬었다. 2일에 걸쳐 지구불시착에 있는 책들을 모두 정리했다. 아주 기본적인 일들도 했다. 화장실 청소나 바닥 닦기나 물품 채우기라던가. 손님이 많이 오시지 않아서 인지 물품 채우기는 많이 안했던 것 같다. 시간이 많이 남아 이런 일들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새로움과 기다림을 배웠던 지구불시착

지구불시착에서의 실습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새로움과 기다림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실습시간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냈다.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주를 이뤘다. 왜 인지 손님이 없는 지구불시착은 저녁시간에 단골분들이 조금씩 오시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다. 그렇기에 택수 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택수 쌤은 엄청 유쾌하고 긍정적인 분이라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커피 내리는 법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면에서도 배운 점이 많았지만 택수 쌤과 대화하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면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성장한 실습이었다고 생각한다.

되살림 가게 든든한 보따리

〈든든한 보따리는〉

든든한 보따리는 공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되살림 가게이다. 마을주민들께서 기부해주시는 물품을 팔아 수익을 마을에 기부한다. 공릉동 주민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든든한 이웃의 시작은 센터 2층에서 시작된 보따리 시장이다. 공터 2층에서 보따리에 물품을 담아와 판매하던 것에서 센터 1층에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을 거점으로 잡아 되살림가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든든한 이웃은 오픈시간이 11시이다. 11시가 되면 가게 안에 들여놔던 물품들을 밖으로 진열하고, 어제 마감 금액과 금고에 들어있는 오픈 금액을 맞추어 본다. 금액 맞추는 게 정말 힘들다.

〈계산전문가〉

나는 든든한 이웃에서 주로 카운터를 맡았다. 지구불시착에서 포스기를 만져봤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매주 수요일에는 물품이 들어오는 날이라 물품정리를 했다. 물품정리는 든든한 이웃에서 기부 받은 물품을 검수하기 위해 되살림센터로 보내고 되살림센터에서 검수된 물품들을 받아 든든한 이웃에 진열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옷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옷 정리가 주된 업무다. 내가 근무할 때 날씨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어 가는 시기라 겨울옷을 빼고 봄옷으로 교체하는 일도 했다.

〈따듯함〉

든든한 이웃은 마감시간이 5시다. 5시에는 오픈할 때 진열해 놓은 물품들을 가게 안으로 들여놓고 포스기에 찍힌 금액과 마감 금액을 맞추어 본다. 오픈 때와 마찬가지로 힘들다. 마감시간에 일어난 재밌는 일이 있었다. 마감이 다 끝난 시점에 4살 정도로 아이가 보이는 부모님과 함께 왔다. 보호자가 마감시간을 착각한 듯 했다. 친구가 자동차를 보겠다고 앞에서 떼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신 자원봉사자께서 문을 열어주고 자동차를 보게 했다. 그 친구는 구경

을 실컷 하고 다음날 오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오지 않았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든든한 이웃에서의 실습은 끝이 났다.

공릉동을 느낄 수 있었던 든이

든든한 이웃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공릉동이었다. 마감 후 찾아온 친구처럼, 든든한 이웃에 찾아오는 분들처럼 든든한 이웃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나는 공릉동을 만날 수 있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와 든든한 이웃을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의 별거 아닌 이야기들에서 공릉동을 엿볼 수 있었고 물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의 발걸음으로 공릉동의 따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든든한 이웃에서 나온 수익은 마을로 돌아간다는 것 또한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 내가 일한 시간을 통해 공릉동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든든한 이웃에서 일하며 나는 공릉동에 대해 알아가고, 이 마을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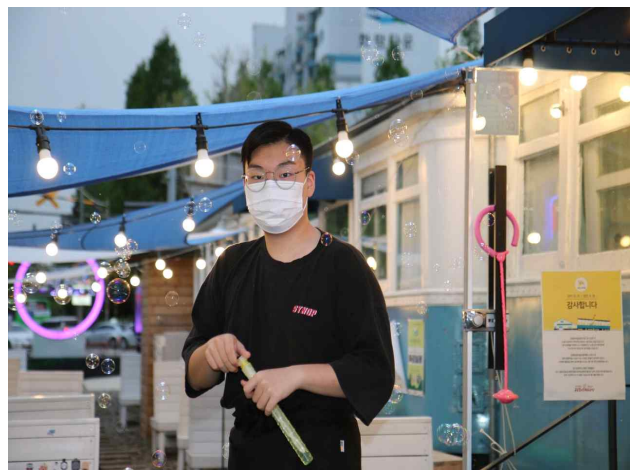
반디상회

〈반디상회는〉

반디상회는 현재 폐역인 구 화랑대역에 전시되어 있는 기차를 리모델링해 운영되었다. 구 화랑대역은 노원구에서 불빛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디상회는 노원구청에서 꿈마을협동조합에 위탁한 사업이다. 불빛정원에 구청직영 카페를 새로 짓는 이유로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

반디상회는 엄청나게 바빴다. 1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했는데 첫날 출근하자마자 주문을 받았다. 마을과 마디에서 포스기 다루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반디상회의 메뉴들을 외우는 일에 힘을 썼다. 특히 우유를 스팀하는 일을 열심히 배웠는데 스팀할일이 많아서 3일째 되는 날에 우유만큼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다. 스팀우유를 이용한 아트도 날이 갈수록 실력이 좋아졌다. 첫 일주일동안에는 메뉴들을 외우는 일에 집중했다. 끝날 때쯤에는 혼자 매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반디상회에서는 주말을 한번 보냈다. 토요일 한번을 보냈는데 주로 슬러시와 아이스크림을 뽑는 일을 맡았다. 아이스크림은 큰 문제가 있었다. 연속으로 3번 이상 뽑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2개를 먼저 뽑아 드리고 기다린 다음 다시 뽑아드려야 했다. 주말이라 주문은 많은데 아이

스크립 기계가 주문량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다. 평일에도 많이 바빴는데 주말은 주문량이 2배에 달할 정도로 정말 많았다.



반디상회 마무리 영상편집

반디상회의 마지막을 기록하기 위해 공터에서 카메라를 주셨다. 일이 없는 시간에는 카메라를 들고 이런 저런 영상들을 찍었다. 바빠서 많은 영상을 촬영하지는 못했지만 영상들을 가지고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 영상을 편집했다. 자기소개 영상 작업할 때의 기억들을 살리며 브이로그느낌으로 편집을 했다. 해보고 싶은 작업들을 쏟아 부은 작업물로 자기소개에 담백함은 빠졌지만 조금의 발전이 보이는 그런 영상이 나온 듯하다.

반디를 마무리 하며

반디상회는 정말 힘들었다. 단순노동의 힘듦을 느낄 수 있는 실습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항상 오던 초등학교 단골친구가 마지막 날에 온 일이었다. 내가 비눗방울을 불고 있으면 항상 와서 자기도 불어보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던 친구가 우는걸 보니 마지막 날이라는 게 그때 가서야 실감이 났다. 한 단체가 마무리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도 큰 경험이었다. 2주를 지낸 나도 마지막 날 그렇게 아쉬웠는데 처음부터 함께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정말 가늠도 안됐다.

커피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마을과 마디에서 커피 체험을 했다면 반디상회에서의 커피 내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배우는 기분이었다. 커피 내리는 일, 단체가 마무리 되는 일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반디상회의 마지막을 기억하기 위해서 영상을 편집한 것도 정말 좋았다. 내가 반디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영상편집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을 때라 영상편집을 또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 기뻐다. 영상편집을 하면 힘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편집을 하게 된다. 내 영상에 좋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내가 처음 생각했던 느낌이 영상에 잘 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상까지 반디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개인프로젝트

공터에서 일하며 개인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내가 직접 기획부터 진행, 평가까지 하는 프로젝트였다. 활동 중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기획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고민했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참여 인원이 있어야 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대중성이 부족해 보였기에 대중성과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주제 중에 고민하고 있었다. 고민이 쉽게 끝나지 않아 윤혁쌤에게 고민점을 이야기 했더니 재밌는 프로그램은 기획자가 즐거워야 참여하는 사람들도 재밌어한다고 말해주었다. 윤혁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기 로 했다.

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진행하는 축구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하지만 구상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해 버렸고,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활동을 가져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 많은 고민 끝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구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축구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정한 이유로는 개인적인 이유가 많이 들어가 있다. 축구를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나는 큰 축구팀이나 조기축구에서 뛰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공릉동에도 나와 같은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축구를 좋아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축구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기획안을 제출했다. 처음으로 기획안을 작성한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됐다. 윤혁쌤이 기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3학년 때 썼던 논문 형식과 정말 비슷했다. 배경을 적고, 목적, 목표와 활동계획과 예산을 적었다. 논문을 작성할 때에도 배경을 적는 일이 정말 힘들었는데 기획서도 마찬가지였다. 작성된 기획안은 피드백을 통해 팀장님께 결재 받게 되었다.

통과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했다. 개인적으로 B급 감성을 좋아하기에(물론 A급을 만들 실력도 없지만…….)눈에 잘 띄고 간단한 포스터와, SNS에서 중요한 축구경기를 홍보할 때 사용하는 느낌의 홍보물을 만들었다.



저조한 참여율이 걱정되었지만 13명이 모집되어 프로그램을 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윤혁쌤이 개인적으로도 홍보를 해주셨는데 그 영향인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 너무 감사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기획한 의도에 대해 설명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팀을 나눠서 2시간 동안 축구를 했는데, 다들 즐겁게 참여해 나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즐거웠다. 참여자 중 14살 청소년이 3명 참여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오히려 높은 실력을 뽐냈다.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웠다.

마무리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또한 즐거웠다는 평이 많아서 뿌듯했다. 개인적으로도 즐겁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다른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도 기획안도 써보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진행해 봐서 행복했다.

팔딱팔딱

팔딱팔딱은 공릉동 청소년 놀이 동아리이다. 보통 토요일에 모여 다함께 논다. 내가 참여했던 활동에서는 진주 조개 파도, 바뀐 물건 찾기와 같은 공동체 놀이를 했다.

팔딱팔딱에서 느낀 점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정말 바쁘다는 것이었다. 나야 시간이 넘치지만 팔딱팔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리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공부와 학원이야기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청소년들이 다 같이 노는 모임이라니 정말 기대되지 않는가. 센터에서 근무할 때에는 항상 팔딱팔딱 모임에 참여했다. 기대한 만큼 재미있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내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과 놀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다. 학교에서 나오고 한동안 내 또래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서로 놀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알아갈 수 있던 게 좋았다. 나는 공터의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도 팔딱팔딱이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마음에 든다.



가치놀자

가치놀자는 공릉동 성인 놀이 동아리이다. 팔딱팔딱과 정말 비슷한 모임이다. 가치놀자는 공릉동에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알리는 놀이문화운동단이다. ‘움직이는 놀이터’를 진행해 아이들과 놀고, 학교나 마을의 어린이 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찾아가 함께 하는 모임이다. 공릉동 어린이 축제 와글와글과 노원의 가장 큰, 탈 축제에서 팔딱팔딱과 함께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놀이의 장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팔딱팔딱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에 모임이 잡혀있었다. 내가 참여했던 회차는 그림을 배워보는 시간이었다. 마을과 마디에서 택수쌤께 그림을 배웠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청소년협동조합

윤희쌤께서 센터에 입사하실 때부터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라고 했다. 공터 안에서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프로젝트의 시작을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감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 프로젝트 기획서를 보여주셨다. 엄청나게 간단하고 잘 설명되어있는 딱딱한 기획서였다. 언젠가 한번 이런 딱딱하지만 잘 정리되어있는 문서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맡은 일은 모집 포스터 디자인이었다. 협동조합의 틀을 잡고 운영해 나갈 이사진을 모집하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모집인원은 10명 이사장 1명, 운영팀 3명, 개발팀 3명, 마케팅팀 3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때 처음으로 신문물 망고보드를 써봤다. 처음 만들어 보는 포스터라 윤희쌤께 피드백을 계속 받았다. 윤희쌤께서 일을 못하실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받았던 것 같다. 확실히 피드백 받을수록 포스터는 가벼워지고 보기 편하게 변해갔다. 결국 완성된 모집 포스터가 게시되었다.

모집된 인원은 6명이었다. 기대했던 인원보다는 적었지만 참여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웠다. 이후에 윤희쌤과 함께 지원한 청소년들과 모임을 진행했다. 윤희쌤이 협동조합을 기획하신 이유부터 협동조합의 비전, 다른 협동조합의 사례를 공유해 주셨다. 여기서 협동조합 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을 내가 맡아서 했다. 설명도 내가 했는데 계획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 설명이 끝난 뒤에는 모집한 친구들과 함께 사전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을 작성했다. 설문항목을 작성할 때 다들 열정적으로 참여해줘서 6명만으로도 협동조합을 이끌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작성한 설문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구글폼을 사용해서

링크를 공유하고, 3층 유스카페에서 직접 설문을 받았다.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 심지어 한번은 기계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게 부탁한 친구들이 그냥 가버리는 일도 생겼다. 정말 슬펐다. 협동조합 이 사진과 윤혁쌤, 내가 노력한 결과 200건 가까이 되는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자료를 가지고 협동조합의 사업 방향성을 정했다.

센터에서는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음료만 마실 수 있었기에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첫 번째 사업 아이템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가장 인기 있는 음료는 에이드였다.



음료가 에이드로 정해져서 자파에이드를 해보자고 의견을 냈다. 자파에이드는 자몽 파인애플 에이드인데 마을과 마디에서 일할 때 한번 먹고 빠졌다. 다들 마을과 마디에 갈 일이 있다면 자파에이드를 먹어보자.

자파에이드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개발팀과 함께 마을과 마디에 갔다. 다들 맛있다고 해서 역시... 자파에이드는 전설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파에이드를 맛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후에 회의를 통해 자파에이드를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5월 15일 회의에서는 이사장을 선출했다. 다들 의욕이 있는 친구들이라 2명이나 이사장자리에 지원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 이사장은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1표 차이로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정해졌



다.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들도 자세하게 분담했다.

무언가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시작해본 것은 처음이라 협동조합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너무 기뻐다. 인턴십 기간 때문에 협동조합의 끝을 모두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협동조합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다. 학교에서의 작업장 같은 경험들이 내가 협동조합의 방향성을 생각해야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꼭 오래 동안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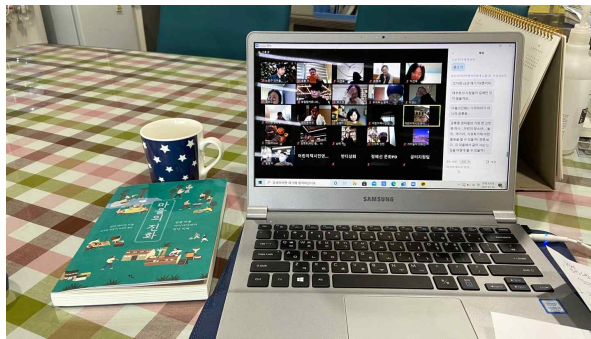
하계중 진로 동아리

하계중학교 진로동아리에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방문했다. 22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 윤혁쌤이 옆에서 활동을 보조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도와드리게 되었다. 윤혁쌤이 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청소년 지도자에 대해 설명한 후 간단하게 놀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데 하계중 친구들도 열심히 참여해줬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프로그램이 재밌게 진행 될 수 있었다. 놀이 프로그램은 공동체놀이 3가지를 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등 뒤에 붙은 동물 이름 맞추기’ 같은 서로 소개하고 다 함께 놀 수 있는 놀이로 진행했다.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다. 덩달아 나도 즐겁게 놀았던 것 같다.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정말 통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웠다.



꿈마을 책 토론

인턴십을 시작할 즈음 윤혁쌤께서 마을의 진화라는 책을 주셨다. 가미야마 마을이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 쓰여 있는 책이었다. 책을 읽으며 만약 내가 마을을 바꾸어 볼 기회가 생긴다면 많이 참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용을 잊어 갈 때 즈음 팀장님이 꿈마을 책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했다. 마을의 진화를 읽고 서로 토론하며 공동체가 어떤 마을이 되면 좋을 것 같은지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간디학교가 중요시하는 가치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자리였다. 특히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더욱 좋았다.



와글와글 이벤트

2021년도는 와글와글 축제를 진행하지 못해 3층 유스카페에서는 이벤트로 소소하게 진행했다. DDR, 플스, 노래방을 이용해서 진행했다. DDR과 플스는 선생님을 이겨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게임을 하고 이기면 간식을 가져가는 이벤트였다. 나도 참여했는데 보통 저 줘야 했지만 승부욕이 생겨서 진심을 다하게 되었다. 다른 선생님들도 점점 실력이 늘어 나중에는 도전하는 친구들이 상품을 타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나도 몇 번 일부로 봐주기도 했다. 업무 중에 갑자기 불러 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업무가 힘들었을 때에는 누가 나 좀 불러달라고 소리치고 싶기도 했다.

노래방에서는 음까지 정확하게 맞춰 불러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상품을 가져가는 이벤트를 했다. 노래방 이벤트는 대결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못했다.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가 보다.



전체 평가

공터에서 이기휘 인턴은

공터에서 이기휘 인턴은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껌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것이었다. 제발 간절히 기도하기를 껌다 놓은 보릿자루만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처음 윤혁쌤이 주신 계획표를 보고 정말 놀랐다. 할 일이 많아서 정말 좋았다. 계속 할 일이 있다는 게 정말 기뻐다. 내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라 계획표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다.

실습처에서의 활동들이 정말 많았다. 덕분에 인턴십 기간 동안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공터에서의 실습도 좋았지만 다른 실습처들에서 했던 일들이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마을과 마디에서는 창작자의 고통과 서점 운영방식, 카페 운영방식을 배웠고, 든든한 이웃에서는 되살림가게 운영방식과 공동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디상회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커피내리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곳에서 실습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센터장님이 일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 공터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은 내가 공터에서 일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공터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태도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나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바뀌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스스로 배움에 욕심을 가지고 맡은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기로 했다. 이런 생각들이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지치지 않을 이유가 됐다.

인턴십과정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영상편집이었다. 자기소개 영상을 편집하는 일과 반디상회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영상편집은 나 스스로도 배움에 욕심이 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다.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도 나쁘지 않아 자신감도 얻었던 것 같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드는 생각은 내 인턴십을 공터에서 진행해서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공터가 가져가는 비전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좋은 기반이 될 것 같다. 마을 활동에 대한 것들을 보고자 찾아왔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자세하게 들여볼 수 있었고, 나의 목표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이 곳에서의 경험이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도구들을 선물해주었다.

마치며

윤혁쌤
설대리님

윤혁쌤

윤혁쌤은 내 인턴기간동안 멘토였다.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앞서 소개한 팔딱팔딱과 가치놀자와 같은 공동체에서 놀이문화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신다. 엄청 동안이시다. 처음 봤을 때 대학생이신 줄 알았다.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이시다. 그래서 그런지 대안학교 생활에 공감해주시고 나를 잘 챙겨주셨다. 점심도 자주 사주시고 사소한 것부터 개인프로젝트까지 많이 신경 써 주셨다. 바쁘신 와중에도 개인프로젝트나 보고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흔쾌히 도와주시는 정말 정말 감사한 분이다. 사실 공터에서 일하면서 내가 무(無) 학력이라는 점이 정말 부끄럽고 힘들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 같아 마음 한편이 불편하고 아팠다. 하지만 윤혁쌤은 그런 내가 암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내가 꺾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지 않게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연결해 주었다. 바쁘실 텐데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설대리님



귀엽다. 심심하거나 힐링이 필요할 때에는 나가서 마구 쓰다듬었다. 이제는 내가 근처에 가서 앉으면 쓰다듬어 달라고 내 옆에 앉는다 너무 귀엽지 않은가.

한번은 설기에게 물렸다. 갑자기 눕길래 배 쪽을 쓰다듬었는데 한번 으르렁대더니 다음에 바로 물었다. 한번 물었을 때 손을 빼지 못해서 두 번 물렸다. 개한테 물려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물려봤다. 엄청 아플 줄 알았는데 나름 견딜 만 했다. 선생님들께서 걱정해주시며 병원을 빨리 가라고 하셨다. 파상풍 주사는 전에 맞은 적이 있어서 맞지 않았다. 3일 정도는 계속 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설기의 매력에 이미 묶여버린 뒤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간식도 계속 주게 되고 계속 쓰다듬으러 가고 완전 빠지게 되었다.

설기 ☆최고★

이기휘 인턴십 보고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찾아

발행일 2021. 5. 27.



노원
국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